

KOSDAQ | 기술하드웨어와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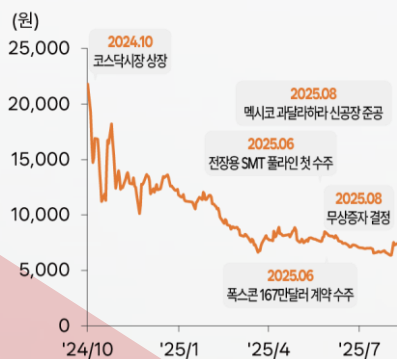
와이제이링크 (209640)

Global No. 1 SMT Platform Leader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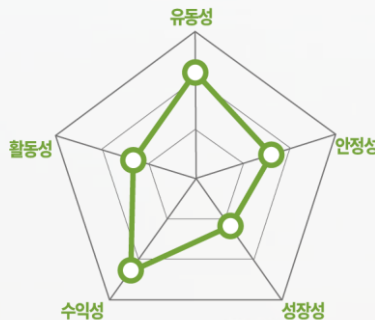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2009년 설립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SMT(Surface Mount Technology, 표면실장기술) 공정장비 전문기업으로 2024년 10월 코스닥 시장 상장, 전방 수요업종은 가전, 자동차(EV) 위주에서 최근 반도체 패키징 공정장비로도 사업영역 확대, SMT Full Line 공급 레퍼런스를 확보한 글로벌 유일 기업으로 글로벌시장 경쟁사는 독일 ASYS, 싱가포르 NUTEK 등 2개사에 불과. 2025년 8월 15일 멕시코 공장 가동으로 북미 자동차 및 가전 EMS 시장 선점 기대
- 투자포인트: 1)글로벌 유일의 SMT Full Line 공급자로 부상, 2)Nearshoring 최대 수혜지인 멕시코 공장 가동으로 시장 선점 기대, 3)반도체 패키징 시장 본격 진출로 수요업종 다변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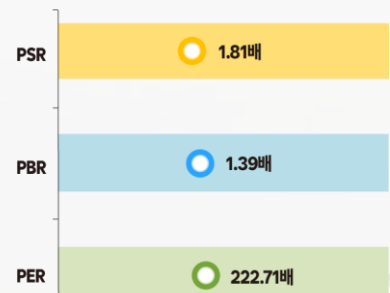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4년 기준, PBR은 4Q24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와이제이링크 (209640)

Analyst 이원재 wonleewj@kirs.or.kr
RA 이희경 hk.lee@kirs.or.kr

KOSDAQ

기술하드웨어와장비

글로벌 유일의 SMT Full Line 공급자로 부상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로부터 전장용 SMT Full Line 최초 수주, 글로벌 유일의 SMT Full Line Platform업체로 부상

Nearshoring 최대 수혜자인 멕시코 공장 가동으로 시장 선점 기대

2025년 8월 15일 멕시코공장 준공, SMT 장비 월 300대 생산능력 확보, 예상 매출규모는 300~400억 원 추정. 멕시코는 북미 중심 공급망 재편에 따른 니어쇼어링의 최적지로 USMCA에 따른 무관세 수혜로 글로벌 자동차 및 전자 부문 EMS 기업 현지 진출 확대

반도체 패키징 시장 본격 진출로 수요업종 다변화 기대

2024년 글로벌 최대 반도체 패키징업체인 대만 ASE에 SMT 장비를 공급하며 반도체 패키징 시장으로도 사업영역 확대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억원)	N/A	590	486	485	621
YoY(%)	N/A	N/A	-17.8	-0.0	27.9
영업이익(억원)	N/A	154	92	-13	63
OP 마진(%)	N/A	26.0	18.9	-2.6	10.1
지배주주순이익(억원)	N/A	131	71	4	35
EPS(원)	N/A	1,303	683	34	243
YoY(%)	N/A	N/A	-47.6	-95.1	623.7
PER(배)	N/A	0.0	0.0	368.2	30.8
PSR(배)	N/A	0.0	0.0	3.0	1.7
EV/EBITDA(배)	N/A	1.4	1.6	146.3	10.0
PBR(배)	N/A	0.0	0.0	2.2	1.3
ROE(%)	N/A	50.3	20.9	0.7	4.3
배당수익률(%)	N/A	N/A	N/A	0.0	0.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8/26)	7,470원
52주 최고가	21,800원
52주 최저가	6,340원
KOSDAQ (8/26)	801.66p
자본금	72억원
시가총액	1,062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4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19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14억원
외국인지분율	0.00%
주요주주	박순일 외 4 인 48.49%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6.7	-29.6	
상대주가	7.4	-32.3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매출총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재고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당좌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기업개요

2009년 설립된 SMT 공정 자동화를 위한 PCB이송장비 및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전문기업

와이제이링크는 SMT 공정의 자동화 및 스마트화를 주도하는 이송장비·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동사는 2009년 6월 16일 대구 성서 산업단지에 설립된 이래로, 2012년 대구 세천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하였으며, 보드 핸들링 장비와 레이저 마킹기 등 SMT 핵심 장비를 국산화하며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0년대 초반에는 벤처 기업 인증과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및 기술혁신 중소기업(INNO-BIZ) 인증 등을 통해 기술혁신 역량을 입증하였다.

동사는 2015년 이후 사업 영역을 단순 이송장비에서 스마트 물류 장비로 확장하며, 스마트 컨베이어 및 AGV(무인운반차)를 개발하여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였다. 2020년에는 'Y시리즈' 보드 핸들링기와 레이저 마킹기를 출시하며 라인업 고도화를 이어갔으며, 2024년 신규 이송장비 시리즈들을 출시하였다. 같은 해, SFS(Smart Factory Solution) 사업부를 설립하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제품 라인업은 표준형인 'Y시리즈', PC제어 기반의 고기능 프리미엄 'P시리즈', 이코노미 'E시리즈', 동남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VF-23시리즈' 등 다양하게 라인업을 갖추었다. 이러한 세분화 전략은 다양한 지역과 고객군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매출 다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SMT라인 PCB 이송장비 신규 시리즈를 개발하여 반도체 및 전자사업의 자동화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있다.

동사는 일본, 중국, 미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인도 등 글로벌 주요 거점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시장으로 사업을 개척하였으며, 글로벌 전자부품 및 반도체 기업들의 AVL(Approved Vendor List)에 등록되며 고객사들을 넓혀왔다. 동사는 글로벌 생산거점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본사 대구와 베트남 하이퐁에 생산법인을 갖추고 있으며, 2025년 8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월 최대 300대 생산규모의 SMT 생산공장을 준공하여 생산에 착수하였다. 2026년에는 인도 벵갈루루 지역, 2028년 이후에는 유럽에도 생산법인을 신설할 계획이다.

연혁

2009~2014	2015~2019	2020~
2009.06 와이제이링크주식회사 설립 2008.08 글로벌 F사 AVL등록 2009.10 벤처기업 인증 2010.01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획득 2010.03 YJLINK JAPAN Co.,Ltd. 설립(일본 Nagoya) 2010.04 모델1.0(A시리즈) 레이저 마킹기 개발 2013.01 기술혁신 중소기업(INNO-BIZ) 인증 2014.06 SUZHOU YJLINK CO.,Ltd 설립(중국 Suzhou) 2014.06 YJLINK INC. 설립(미국 LA)	2015.02 글로벌 C사 SSL 등록 2015.07 독일 오피스 & 데모룸 Open 2015.07 YJLINK MEXICO SA DE CV. 설립(멕시코 Guadalajara) 2017.02 글로벌 V사 AVL 등록 2017.04 글로벌 T사 AVL 등록 2017.05 스마트 컨베이어 개발 2018.02 AGV 개발 2018.09 글로벌 C사 AVL 등록 2019.01 글로벌 J사 AVL 등록 2019.05 YJLINK VINA Co.,Ltd. 설립(베트남 Haiphong)	2020.06 모델 2.0(Y시리즈) 보드핸들링기/레이저마킹기 개발 2021.01 글로벌 H사 AVL 등록 2021.03 글로벌 V사 AVL 등록 2021.11 YJLINK EUROPE GmbH 설립(독일 Eschborn) 2023 베트남 생산법인 공장 증설 2024.04 YJLink India 설립 2024.05 신규 이송장비 시리즈 런칭 2024.10 글로벌 K사 AVL 등록 2024.10 SFS 사업부 설립 2024.10 코스닥 상장 2025.05 SMT라인 PCB이송장비 신규 시리즈 개발 2025.08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SMT장비 공장 준공

자료: 와이제이링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사업영역

**SMT공정 스마트화를 위한
장비 제조업체로, 주력 제품은
Loader, Unloader, Conveyor,
Buffer 등 PCB 이송장비**

와이제이링크는 SMT공정 스마트화를 위한 장비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SMT(표면실장기술)란 Surface Mounted Technology의 약자로, 전자부품을 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 표면에 직접 실장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SMT공정은 PCB에 SMT이나 SMD 부품을 부착하여 PCB Assembly를 제조하는 공정으로, SMT Line 장비에는 일반공정장비와 스마트공정장비가 있으며 동사는 그 중 스마트공정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SMT공정 스마트화 제조라인은 보통 15~30대의 장비로 구성되며, 기본구조는 Loader, Screen Printer, SPI, Chip Mounter, Reflow Oven, Conveyor, Buffer, AOI, Unload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동사의 주력 제품은 Loader, Unloader, Conveyor, Buffer 등 PCB 이송장비이다. PCB 이송장비란 SMT 공정 내 각 장비 간에 PCB를 자동으로 공급, 적재, 이송해주며 장비 간의 공정시간 차이에 대한 완충 역할을 수행하는 장비이다.

이와 함께, 동사는 PCB 추적장비, SMT 후공정장비,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등도 주력 제품군으로 보유하고 있다. PCB 추적장비는 SMT 공정에서 제조되는 PCB Assembly의 이력을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는 장비로, 대표적인 제품은 Laser Marking 장비이다. SMT 후공정장비는 공정이 완료된 후 부품이 실장된 PCB를 낱장으로 자르는 Router, PCB 표면의 코팅액을 경화시키는 CuringLink, Tray에 담긴 PCB를 분리하거나 적재하는 Turning Robot, 그리고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FCT 등이 포함된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의 경우에는, SMT 공정의 완전자동화를 위한 솔루션인 Smart Conveyor System, SMT 부품을 보관하는 Reel Tower, PCB를 관리하기 위한 Magazine Tower, 부품 및 PCB를 이송해 공정에 투입하는 AGV 등이 있다. 이러한 제품군들을 모두 합치면 SMT 제조라인의 70% 이상에서 동사의 장비가 활용되고 있다.

동사의 2025년 상반기 연결 매출액은 179억 원으로, 지역별 매출비중은 국내 9.2%, 멕시코 20.7%, 미국 20.5%, 유럽 16.2%, 아시아 33.4% 등이다. 사업부문별 별도 매출비중은 Conveyor 41.5%, Loader/Unloader 28.4%, Laser Marking 28.4%, Buffer 12.7%, Router 1.0%, Smart Factory 1.5%, 기타 3.3%, 상품 6.5%, 기타매출 5.2% 등이다. 동사의 고객사로는 Tesla(미국), SpaceX(미국), Apple(미국) 등의 글로벌 Top maker와 Flex(미국), Continental(독일), JABIL(미국), Vitesco(독일), Harman(미국), Visteon(미국), Bosch(독일), ZF(독일), Denso(일본) 등의 글로벌 EMS업체 및 자동차 전장 부품 제조기업이 있다.

SMT 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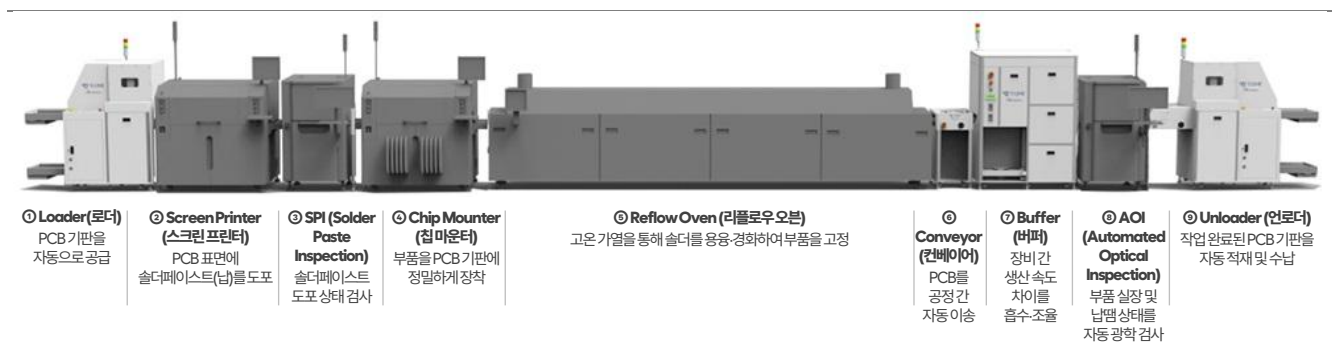
자료: 와이제이링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와이제이링크 주요 제품 포트폴리오

구분	주요 제품			
PCB 이송장비				
	<Loader>	<Unloader>	<Buffer>	<Conveyor>
PCB 추적장비				
	<Turn>	<PCB Cleaner>	<Sky Line>	<Pallet Line>
SMT 후공정장비				
	<Manual>	<Outfeed>	<Laser Marking>	<Inkjet Marking>
Smart Factory Solution				
	<Label Print>	<Scanning>	<ROUTER>	<IFCT>
				
	<Curing link>	<Turning Robot>	<Smart Conveyor System>	<AGV>
				
	<Reel Tower>	<Magazine T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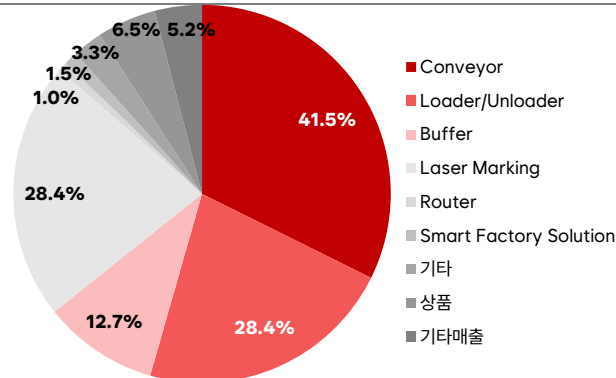
자료: 와이제이링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SMT공정 스마트화 제조라인 기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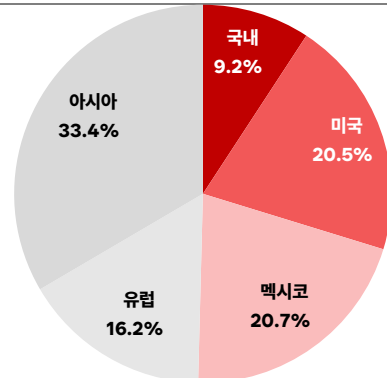
자료: 와이제이링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사업부문별 별도 기준 매출비중(1H25)



자료: 와이제이링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지역별 매출비중(1H25)



자료: 와이제이링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3 종속회사

**1H25기준 종속회사는 7개로,
국내 법인 1개(에스아이큐브),
해외 법인 7개**

동사의 종속회사는 2025년 상반기 기준 7개사다. 그 중 해외 법인은 6개로, 베트남, 유럽, 중국, 일본, 멕시코, 인도에 각각 설립되어 있으며, 국내에는 에스아이큐브가 있다. 에스아이큐브는 주요 사업으로 부품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5년 5월 디에이치정밀에서 에스아이큐브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반면, 해외 종속기업들은 모두 SMT 장비 마케팅, 자동화기기 설치 및 AS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해외법인 중 베트남 법인만 생산법인으로, CS뿐만 아니라 SMT 자동화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이 96억 원, 당기순이익이 9억 원으로 연결 매출액 기여도가 큰 편이며, 나머지 해외 법인들의 실적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종속회사(1H25)

(단위: 억 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지분율	자산	1H25 매출액	반기순이익 (손실)
주식회사 에스아이큐브	2011.01.04	대한민국	부품 가공 외	100%	53	3	1
YJ LINK Japan Co.,Ltd.	2010.03.23	일본	마케팅 및 CS	100%	5	1	0
SUZHOU YJ LINK Co.,Ltd.	2014.06.09	중국	마케팅 및 CS	100%	1	1	0
YJ LINK Mexico S.A. DE C.V.	2015.07.13	멕시코	마케팅 및 CS	100%	167	11	-9
YJ LINK Vina Co.,Ltd.	2019.05.24	베트남	제품 생산 및 마케팅, CS	100%	192	96	9
YJ LINK Europe GmbH.	2021.04.14	유럽	마케팅 및 CS	100%	28	11	-2
YJ LINK INDIA PRIVATE LIMITED.	2024.04.12	인도	마케팅 및 CS	100%	71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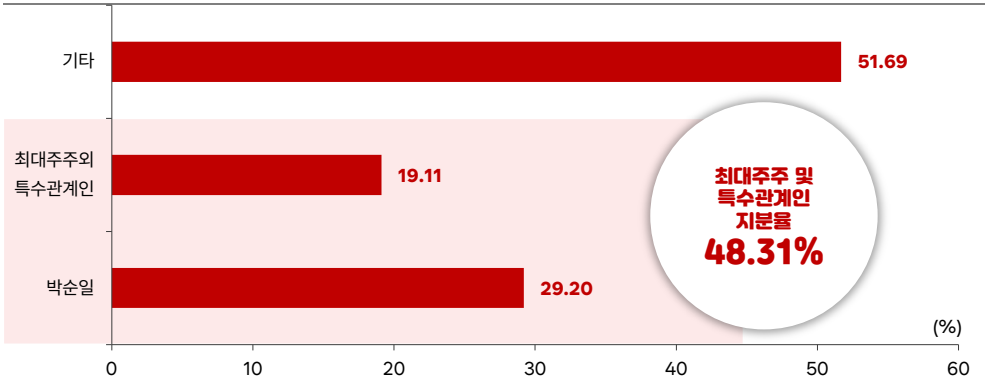
자료: 와이제이링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4 주주현황

**최대주주는 박순일 대표이사로,
1H25기준 지분율은 29.2%**

동사의 최대주주는 박순일 대표이사로, 2025년 6월 30일 기준 지분율은 29.2%이다. 박순일 대표이사는 일본 코마자와대 경영공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파나소닉정공코리아의 영업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2009년 동사를 설립하였으며, 2025년 5월부터 종속회사인 에스아이큐브의 대표이사직도 겸임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이나 자사주는 없으며, 5%이상 지분율을 보유한 주주로는 이성균 사장(76%), 김동현 부사장(56%), TAKAHARA KUNIHIRO(5.1%) 등이 있다.

주주현황(1H25)



자료: 와이제이링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1 SMT 공정장비 산업 개요

1980년대 이후 개인용 IT기기
위주로 경박단소화되면서
SMT 공정 기술 발전

SMT(Surface Mount Technology, 표면실장기술)는 전자부품을 인쇄회로기판(PCB)의 표면에 직접 납땜하여 붙이는 기술을 말한다. 이전에는 PCB에 구멍을 뚫어 부품의 리드(Lead)를 삽입하는 PTH(Plated Through Hole) 기술을 사용하였으나, SMT는 부품의 크기를 대폭 줄이고, PCB의 양면에 전자부품을 실장(Mount)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자기기의 소형화와, 고밀도화, 경량화, 비용 절감, 대량생산을 가능케 한 핵심 기술이다.

1980년대 이후 전자제품은 개인 휴대용 기기를 중심으로 점점 더 경박단소(輕薄短小)화되기 시작하면서 휴대폰,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에서 기존 기술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수준의 집적도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SMT 공정은 기존 부품의 리드(Lead)를 제거하고 직접 PCB 표면에 바로 부착함으로써 부품 자체의 크기와 PCB에 필요한 공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전자제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산속도와 효율성도 중요해졌는데, 기존 관통형(PTH) 기술은 PCB 구멍에 리드를 삽입하고 납땜하는 복잡한 공정이었기 때문에 자동화가 어려워 생산속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해 SMT 공정은 Chip Mounter(칩 마운터)라는 자동화 장비를 이용해 고속으로 부품을 PCB에 실장할 수 있게 되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SMT 공정은 초기에는 관통형 기술보다 비용이 높았으나, 기술발전과 부품 단가 하락으로 생산장비의 효율이 높아지면서 생산비용도 절감되었다. 또한 PCB 양면에 부품을 실장할 수 있게 되면서 PCB 크기를 줄이고, 공정 단순화를 통해 인건비와 재료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SMT 공정은

- 1) Solder Paste,
- 2) Mounting,
- 3) Reflow,
- 4) 검사(AOI) 및 테스트로 구성

SMT 공정은 크게 PCB Loading-Solder Paste(납땜 도포)-SPI(Solder Paste Inspection, 납땜 검사)-Chip Mounting(부품 실장)-Reflow(납땜 경화)-AOI(Automated Optical Inspection, 자동광학검사)-Unloading(적재)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SMT 공정의 제조라인을 세분화하면 보통 15~30대의 장비로 구성되며 기본구조는 1)PCB 기판을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Loader, 2)납땜을 PCB 표면에 도포하는 Screen Printer, 3)납의 도포 상태를 검사하는 SPI(Solder Paste Inspection), 4)부품을 기판에 장착하는 Chip Mounter, 5)납땜을 열로 경화하는 Reflow Oven, 6)PCB를 이송하는 Conveyor, 7)양쪽 장비 간의 다른 생산 속도차를 결합하는 Buffer, 8)부품의 실장 상태를 검사하는 AOI(Automated Optical Inspection), 9)작업이 완료된 PCB 기판을 적재, 수납하는 Unloader로 구성되어 있다.

SMT 공정 장비 중에서 특히 Screen Printer, SPI, Chip Mounter, Reflow Oven, AOI는 휴대폰이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발전해왔으며, 2000년대부터는 SMT 공정의 자동화를 위한 Conveyor, Buffer 등이 개발되었으며, PCB를 자동으로 공급, 적재하는 Loader, Unloader도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전체 SMT 공정장비 중 Loader, Unloader, Conveyor, Buffer 등 PCB 이송장비는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이와 더불어 PCB 추적장비, SMT 후공정장비, Smart Factory Solution 등을 포함하면 SMT 공정의 70%를 차지한다.

Solder Paste(납땜 도포)

부품을 납땜할 위치에 납땜용 크림(Solder Paste)을 도포하는 공정으로 스텐실(Stencil)이라는 금속판을 PCB 위에 올려 놓고 솔더 페이스트를 스queegee(스퀴지)로 밀어 부품이 실장될 패드(Pad)에 정확하게 도포하는 공정으로 필요한 장비는 Screen Printer이다. 주요 업체로는 일본의 파나소닉, Yamaha, 후지(Fuji), 독일 ASM 등이 있다.

Mounting(부품실장)

Solder Paste가 도포된 PCB 위에 표면실장부품(SMD)을 정확한 위치에 올려놓는 공정으로 Chip Mounter라는 자동화 장비가 진공 노즐을 이용해 부품을 흡착하여 집어 올린 후 PCB 위의 정해진 위치에 고속으로 실장하는 공정이다. 부품실장에 사용되는 장비는 Chip Mounter 또는 Pick & Place Machine이다. 주요 Chip Mounter 제조업체로는 일본의 파나소닉, 후지(Fuji), 야마하(Yamaha), 독일 ASM, 국내 한화세미텍(舊 한화정밀기계) 등이 있다.

Reflow Oven

실장된 부품을 PCB에 완전히 고정시키는 공정으로 부품이 실장된 PCB를 리플로우 오븐에 통과시켜 Solder Paste(납땜)를 녹여서 부품과 PCB의 패드를 전기적으로, 기계적으로 서로 연결한다. 대표적인 리플로우 오븐 제조업체로는 미국 Heller Industries가 있다. Heller는 SMT, 전자부품, 전력장치, 반도체 패키징 산업의 열처리 솔루션 전문업체이다.

검사 및 테스트

납땜 상태와 부품실장 상태를 검사하여 불량률 확인하는 공정으로 필요한 장비는 SPI(Solder Paste Inspection, 납땜 검사), AOI(Automated Optical Inspection, 자동광학검사) 등이 있다.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로는 국내 고영 테크놀로지, PARMi, 펌트론, 미르기술(Mirtec), 일본 Saki Corp, 독일 Viscom AG, 대만 Test Research 등이 있다.

파나소닉 Screen Printer SPV 모델



자료: Panasonic Connec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파나소닉 마운터(Modular Placement Machine NPM-GW)



자료: 업체별 실적 참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Heller社 리플로우 오븐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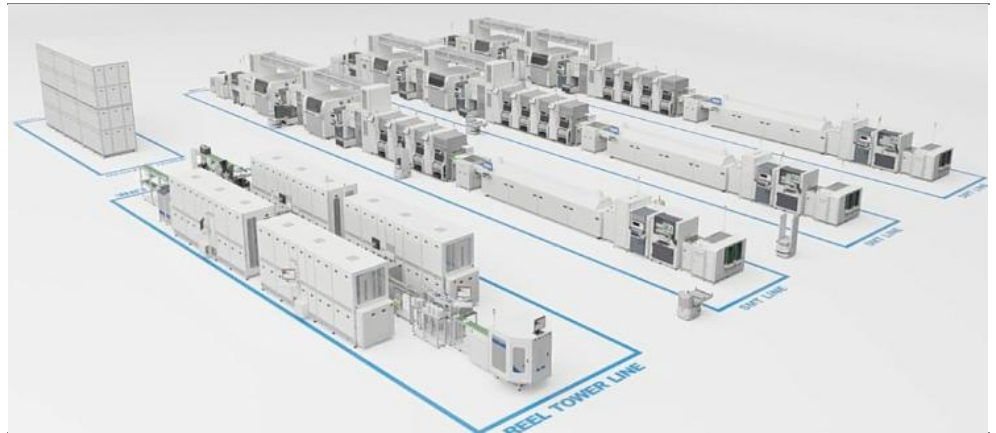
자료: Heller Industries,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고영 SPI & AOI 장비



자료: 고영,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와이제이링크 SMT Platform



자료: 와이제이링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SMT 주요 산업

SMT의 주요산업은 전자제품, 자동차(EV), 통신, 우주항공 및 방산, 반도체, 의료, 산업용 등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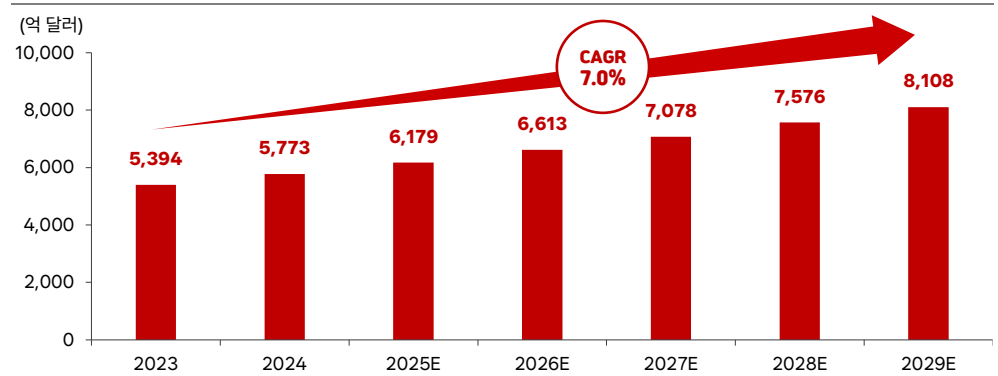
동사는 PCB Assembly 업체의 SMT 스마트 공정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전기전자산업과 관련한 전방산업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차와 소형가전, 스마트폰 등 전자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통신시장은 3~5년 주기, 자동차시장은 1~2년 주기로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스마트폰 등 전기전자 제품은 6개월 주기로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전방시장마다 주기가 다르다. 전방산업이 다양한 만큼 SMT 장비업체는 어느 특정 전방산업의 경기변동에 따른 실적 민감도는 크지 않다. SMT 시장은 계절적인 실적 변동요인도 거의 없으며, 주로 전기전자 산업과 같은 전방산업의 기술 변화와 신제품 출시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전기전자 산업은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며,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는 SMT 공정 장비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SMT는 작고 밀도가 높은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로서 소형화된 전자제품의 급격한 증가로 고밀도 및 고성능이 요구되고 있으며, SMT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이다. SMT는 기본적으로 자동화기술에 기반해 대량생산을 가능케하며, 생산성 향상 및 인건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SMT 기술의 적용처로는 전자제품, 자동차(EV), 통신, 우주항공방산, 반도체, 의료기기, 산업용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

SMT의 최대 수요산업은 전기전자산업으로 EMS(전자제조) 기업들과 동반 성장

SMT의 최대 수요처는 전기전자산업으로 신제품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설비투자에 대한 위험을 줄일 목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을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제조 및 서비스를 전담하는 EMS(전자제조서비스)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PCB Assembly를 제조하는 기업들이 동사를 포함한 SMT Line 장비 공급업체들의 직접적인 1차 고객사들이다. Precedence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EMS 시장 규모는 2023년 5,394억 달러에서 2029년 8,108억 달러로 연평균 7.0% 성장할 전망이다. 글로벌 EMS 시장의 성장요인으로는 OEM 기업들이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하고자 생산 및 조립 공정을 EMS 기업에 위탁하는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OEM 기업들은 비용 절감 및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으며, 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기기 및 웨어러블 기기 등 전자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생산하는 EMS 시장도 동반 성장하고 있으며, IoT, AI, 5G 등 첨단기술의 확산도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전자 부품 및 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어 EMS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차(EV) 및 자율주행기술의 발달도 자동차에 탑재되는 전자부품 수요가 비약적으로 늘어나 자동차 전장 분야는 EMS의 신규 성장동력으로 부상하였다.

글로벌 EMS 시장 규모 전망: 2023-2029 CAGR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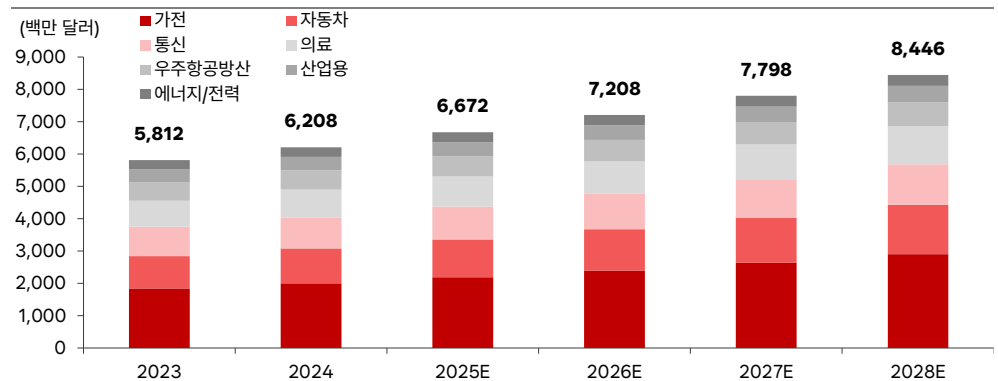


자료: Precedence Research,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SMT 시장규모는 2028년까지
84.4억 달러로 CAGR 7.8% 성장**

SMTA(표면실장기술협회)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SMT 시장 규모는 2023년 58.1억 달러에서 2028년 84.4억 달러로 향후 5년간 연평균 7.8% 성장이 예상된다. 가장 높은 수요비중을 차지하는 전방산업은 가전으로 2023년 18.4억 달러에서 2028년 29.0억 달러로 연평균 9.5% 성장이 전망된다. 가전에 이어 자동차산업은 SMT 시장의 두번째 수요시장으로 2023년 10.0억 달러에서 2028년 15.2억 달러로 연평균 8.9% 성장할 전망이다. 가전과 자동차산업을 합한 수요 비중은 2023년 48.8%에서 52.4%로 3.6%p 상승할 전망이다. SMT의 세 번째 수요시장은 통신산업으로 2023년 9.1억 달러에서 2028년 12.5억 달러로 연평균 6.6% 성장이 예상된다. 뒤를 이어 의료시장 수요는 2023년 8.1억 달러에서 2028년 11.9억 달러로 연평균 8.0% 성장할 전망이다. 최근 신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항공우주 및 방산산업은 2023년 5.7억 달러에서 2028년 7.4억 달러로 연평균 5.4% 성장할 전망이다. 그 밖에 산업용 수요시장은 동기간 CAGR 4.6%, 에너지 및 전력시장 CAGR은 3.2%로 전망되고 있다.

SMT 수요산업별 시장 규모 전망



자료: 표면실장기술협회(SMT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SMT Line 경쟁사 현황

글로벌 SMT 공정 장비 시장에서
경쟁사는 독일 ASYS와 싱가포르
NUTEK 등 2개사에 불과

SMT 공정 장비 중 PCB 이송장비 부문의 글로벌 경쟁사는 독일의 ASYS와 싱가포르의 NUTEK 등 2개사뿐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중소 규모 로컬 기업이다.

동사는 SMT 라인에 포함되는 Loader, Unloader, Conveyor, Buffer 등 PCB 이송장비 제조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니즈에 따라 Reel Tower, Magazine Tower 등을 개발하는 Smart Factory Solution 및 반도체 후공정에서 활용되는 Boat Loader/Unloader, Automation 장비 등도 개발하고 있다.

국내 기업 중에 SMT, 2차전지, 반도체 전공정, 반도체 후공정 등에 장비를 공급하는 상장사는 다수이나, 동사와 같이 SMT 산업을 전방산업으로 두고 스마트 공정장비를 개발하는 회사는 국내 시장에는 거의 全無하다.

ASYS Group

독일기업으로 1992년 설립되어 창립 초기부터 전자산업의 핸들링시스템을 표준화하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도입했다.

ASYS는 제품군 소프트웨어와 물류솔루션까지 결합하면 전체 SMT 제조라인의 75%까지 공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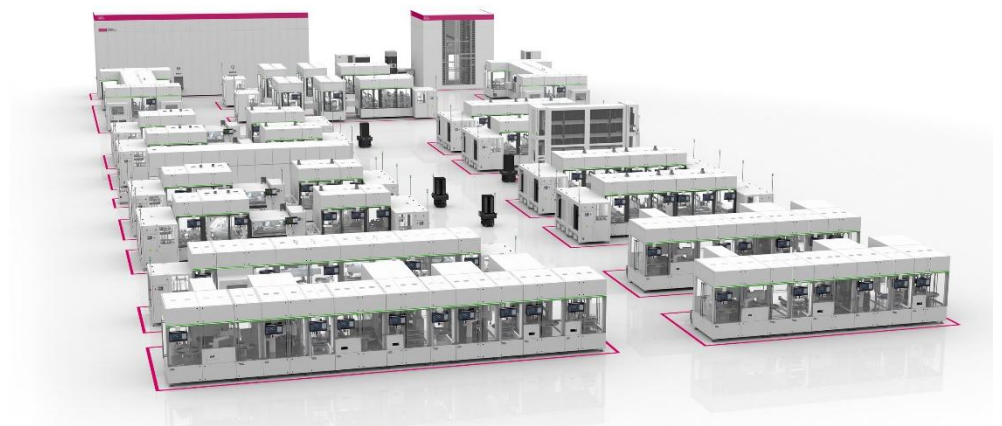
주요 사업은 전자, 에너지, 생명과학 등 3가지 사업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1,4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전자산업은 ASYS의 핵심사업영역으로 Handling System(PCB 이송 등 표준화된 핸들링 모듈), Marking 및 Labelling System, Printing System, 자동물류시스템,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공급한다.

독일 본사 외에 유럽, 스위스, 아시아, 미국 등에 20개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40개국 이상에 로컬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지사를 설립하며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으며, 2005년에는 그룹 M&A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결정으로 고정밀 Screen Printer기업인 EKRA를 인수하여 Solder Paste 프린팅 시스템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 헝가리 등에 지사를 추가하였으며, 2010년대 이후로는 생명과학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등 Smart Factory Solution업체로 성장 중이다.

ASYS Group는 비상장 Private Company로 실적을 공시하지 않아 정확한 실적을 확인하지 어려우나, 2022년의 경우 1.5억 유로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 수주액은 1.8억 유로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연간 매출액 및 수주액이 원화기준 2천억 원대 이상으로 동사에 비해서는 매출규모가 3-4배 이상 큰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ASYS Group SMT Line



자료: ASYS Group,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은일

국내 비상장 경쟁사로는 동사가 IPO 당시 투자설명서에 경쟁업체로 표기한 (주)은일이 있다. 은일은 1994년 11월 대구 광역시에서 (주)동기통상으로 설립되어 1997년 10월 (주)은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1년 8월 대구 달서구 성서산 업단지로 본사를 이전하였다. (주)은일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 해외지사를 두고 있으며, 동사와 사업영역이 겹치는 PCB 이송장비 매출비중이 약 60%를 차지한다. 주요 제품으로 SMT 공정용 PCB 조립생산기기, 자동화장비, 반도체 후공정 조립장비 등을 제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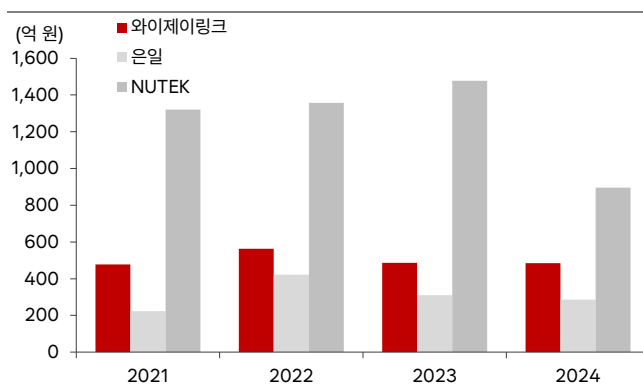
2024년 은일의 매출액은 286억 원, 영업이익은 4억 원을 기록하여 매출 규모는 동사의 60~70%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매출성장률을 보면 동사가 2015년 이후 2024년까지 연평균(CAGR) 12.5% 성장한 데 비해 은일은 동기간 연평균 3.7% 성장하는데 그쳐 동사에 비해 성장성이 높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을 보면 동사가 8.5%를 기록한 반면 은일은 동기간 5.3%를 기록하여 동사에 비해 수익성도 낮은 편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엔데믹으로 전방 수요시장이 회복된 시기인 2022년과 2023년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15.1%, 18.9%를 기록했으나, 은일의 영업이익률은 동기간 9.5%와 1.8%를 기록하여 수익성 차이가 컸다.

Nutek Private Limi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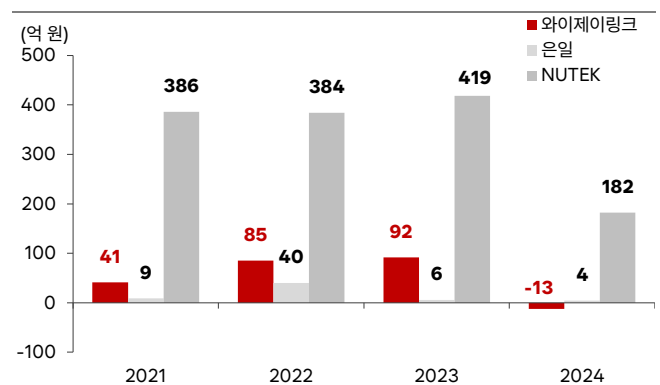
1989년 설립된 비상장 싱가포르기업으로 전자부품 생산 및 자동화 시스템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이다. 특히 PCB 및 반도체산업의 핸들링 장비를 주력으로 공급하고 스마트팩토리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글로벌 SMT 공정 장비기업이다.

2025년 8월 기준 직원수는 464명이며, 싱가포르 본사 외에도 중국(상해), 유럽(네덜란드, 영국), 미주(콜로라도), 호주, 뉴질랜드 등에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매출액은 원화 기준 2023년 1,477억 원에서 2024년 895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동사에 비해서는 매출 규모가 2~3배 정도 큰 업체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Nutek의 수익성으로 영업이익률이 평균 20~30%에 달한다. 2021~2023년 3개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9%에 달했으며, 2024년에는 20.4%로 하락하였다. 전체 매출액 중 PCB 이송장비 매출 비중이 90%를 차지한다. 제품 포트폴리오로 Economic 시리즈, Standard 시리즈, Advanced 시리즈 등 3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Economic 시리즈는 기본 성능을 가진 엔트리 수준 장비이며, 스탠다드 시리즈는 표준화된 장비이며, Advanced 시리즈는 고사양 제품군이다. 동사의 경우에도 2024년부터 Y(표준) 시리즈 이외에 P시리즈(프리미엄)와 가성비 모델인 E시리즈를 출시하여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객사별로 다양화한 점은 NUTEK과 유사하다.

SMT 라인 경쟁업체 매출액 비교

자료: 업체별 실적 참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SMT 라인 경쟁업체 영업이익 비교

자료: 업체별 실적 참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글로벌 유일의 SMT Full Line 공급자로 부상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로부터
전장용 SMT Full Line 최초 수주,
글로벌 유일의 SMT Full Line
Platform업체로 부상

동사는 지난 6월 설립 후 처음으로 현대기아차의 1차 협력사로부터 SMT 풀라인을 수주하며 글로벌 전장시장에 풀라인으로 본격적인 진출을 알렸다. 계약금액은 약 26억 원으로 동사는 전공정과 후공정을 포함하여 SMT Full Line 1개 라인을 대구 생산라인에 구축해 7월말까지 공급하는 계약이다. 동사는 그동안 SMT 장비의 약 70%를 자체 생산해왔으며, 동사가 생산하지 못하는 일부 장비(Screen Printer, Chip Mounter, SPI&AOI, Reflow Oven 등)는 국내외 업체들로부터 조달하여 풀 생산라인을 신사업으로 준비해왔다. 현대기아차의 1차 협력사인 K사는 향후 멕시코공장에도 동일한 스펙의 SMT 풀라인 설비를 도입할 예정으로 SMT 풀라인 공급은 기존 단일 장비 위주 공급에서 고객사의 중장기 사업 파트너로 Repeat Order에 기반한 고객사의 락인(Lock-in) 효과도 기대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글로벌 제조환경이 기존의 생산설비에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컴퓨팅,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적층 제조 및 3D 프린팅, 자율 로봇, 디지털 트윈, 사이버보안 등 Industry 4.0 시대의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됨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기기 제조의 핵심인 SMT 라인도 스마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동사는 글로벌 SMT 산업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SMT Line의 완전 스마트화 구현이 가능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다.

SMT 공정 라인을 구성하기 위해 동사의 고객사인 PCB Assembly업체나 EMS 업체들은 그동안 설비투자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최적의 SMT Line을 자체적으로 설계해야 하고, SMT 장비가 15~30개로 많다 보니 장비 구매를 최소 6번 이상 나누어 각각 진행해야 하고, 특히 Screen Printer, SPI, Chip Mounter, Reflow Oven, AOI 등 5대 장비는 각각 다른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며, 기타 스마트 공정장비의 경우에도 공급사를 별도로 찾아야 했다. 그 밖에도 장비 구매 후 Industry 4.0 구현 및 라인 테스트를 위해 약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SMT Line 가동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수의 장비 공급사 및 시스템 구축사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이렇게 고객사가 직접 SMT Full Line을 구축하여 시운전을 거쳐 양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2년여의 시간이 필요하다.

동사의 경우 직접 제조하지 않는 5대의 장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SMT 공정장비를 자체 개발하여 제조하는데, Industry 4.0 구현을 위한 Hermes Standard(장비간 통신 표준), iLnb(파나소닉의 통합라인 관리시스템)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트윈 기반의 Smart Conveyor 개발로 장비상태 및 생산 현황 등을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실시간 유지보수 및 공정 변경, 실시간 추적관리, 서버와 장비간 양방향 데이터통신, 보안관리 등이 가능하다. 동사의 제품군 중에서 PCB 추적장비, SMT 후공정장비, Smart Factory까지 투입하여 SMT Line의 완전 자동화를 추진하면 SMT Line 대부분을 동사의 장비로 구성할 수 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SMT Full Line을 동사를 통해 구축하면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내에 원스톱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어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동사는 택타임 10초의 PCB 이송장비 시리즈도 1차 개발을 완료하였는데, 택타임 10초를 구현하게 되면 경쟁사의 20초대 SMT Line에 비해 2배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공장 필요면적도 50%로 줄어드는 비용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SMT Full Line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중장기적으로 EMS 고객 확대를 통한 안정적 매출 창출로 매출 변동성을 줄일 수 있으며, 고객사 락인(Lock-in)효과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외형 성장 및 수익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SMT Full Line 솔루션 기대 효과



자료: 와이제이링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Nearshoring 최대 수혜지인 멕시코 공장 가동으로 시장 선점 기대

**2025년 8월 15일 멕시코공장 준공,
SMT 장비 월 300대 생산능력 확보,
예상 매출규모는 300~400억 원
추정**

동사는 지난 8월 15일 멕시코공장을 준공하며 베트남 공장에 이어 두번째로 해외 생산거점을 확보하였다. 멕시코공장은 미주지역 매출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판매법인에서 생산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총 150억 원이 투자되어 2024년 하반기 착공하여 1년여만에 가동하였다. 멕시코공장은 멕시코 중부 제2대도시인 과달라하라(Guadalajara)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생산공장과 물류센터를 포함하여 총 2,500평의 부지에 건설되었으며, SMT 장비 기준 월 300대 생산 CAPA를 확보하였다. 풀가동 시 연간 예상되는 매출 규모는 300~4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동사는 2019년 베트남 생산법인을 설립해 첫 해외생산기지를 구축했으며, 베트남 법인은 2022년 매출액 187억 원, 당기순이익 43억 원을 기록하여 연결 기준 외형 성장과 더불어 원가 절감으로 수익개선 효과가 컸다. 동사의 2020~2021년 매출원가율은 평균 76%에 달했으나, 베트남법인 가동효과로 2022년 매출원가율은 65.1%, 2023년 55.7%까지 하락하며 영업이익률이 2022년 15.1%, 2023년 18.9%까지 상승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베트남 생산법인의 성공 사례는 멕시코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멕시코공장의 가동으로 월간 SMT 장비 생산능력은 대구 본사 200대, 베트남 500대에 이어 멕시코 300대 등 3개 생산거점에서 월간 1,000대 생산능력을 확보하였다. 연간 매출액 기준 생산능력은 본사 500억 원, 베트남 800억 원, 멕시코 300억 원 등 총 1,600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2024년 매출액의 3.3배 규모이다.

**멕시코는 북미 중심 공급망 재편에
따른 니어쇼어링의 최대 수혜지**

멕시코는 북미 중심 공급망 재편에 따른 니어쇼어링(Nearshoring)의 최대 수혜지로 북미 시장 공략의 최적지이다.

현재 멕시코에는 동사처럼 SMT Full Line 장비를 공급가능한 업체가 전무하여 동사에는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다.

니어쇼어링은 'Near'와 'Shoring'이 결합된 용어로 근접한 곳으로 생산을 이전한다는 개념이다. 제조업 기업들이 제품 생산을 국내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향이나 전략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멕시코는 미국의 對중국 규제에 따라 중국의 대체 생산지로 최적의 생산거점으로 니어쇼어링 최대 수혜지로 부상했다.

멕시코가 미국의 니어쇼어링 최대 수혜지로 부상한 배경으로는 멕시코가 1992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다, 2018년부터 트럼프정부 1기 행정부 주도로 再협상되어 현재는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로 이어져오고 있다.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근접국으로 지리적 이점이 큰데다, 인건비는 중국대비 30% 절감이 가능하고, 자동차 및 EMS 기업이 집중된 지역으로 공급망도 안정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이점은 USMC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일 것이다.

USMCA에 따른 관세 면제가 멕시코 니어쇼어링의 최대 혜택

최근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멕시코는 USMCA로 인해 관세가 면제된다. 이는 '어느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해 기존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USMCA 협정문(제 2.4조)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USMCA 덕분에 멕시코의 對美 무역 중 84% 이상이 무관세로 적용 받고 있다. 멕시코가 미국 니어쇼어링의 최적지로 부상하면서 멕시코 해외직접투자액(FDI)은 2024년 369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45%를 투자하였으며, 뒤를 이어 일본, 독일, 캐나다 順으로 나타났다. FDI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되었으며, 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전자, 가전제품 분야가 투자를 주도하였다. 멕시코는 2024년 FDI 규모에서 글로벌 9위, OECD 국가 중 5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최대 투자국인 미국은 전체 멕시코 FDI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부문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화학, 음료 등이다. 자동차 기업으로는 테슬라, GM, Ford 등이 모두 멕시코에 진출해 있으며, 전자제품 제조사로 GE, Whirlpool, Apple 등이 현지에 진출해 있다. 자동차부품회사로는 Autoliv, Vertiv, Tenneco, BorgWarner, Timken 등이 진출해 있다. 캐나다 기업으로는 자동차부품기업인 Magna, Celestica, Linamar가 진출해 있으며, 일본 기업으로는 Nissan, Toyota, Honda 등 자동차업체와 Denso, KYB, KASAI 등 자동차부품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차, 포스코, CJ 등 국내기업들도 다수 진출

멕시코 경제부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4년까지 멕시코에 투자한 이력이 있는 한국기업수가 2,000여개사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통계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525개의 한국기업이 멕시코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들 보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기업들과 현대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트랜시스/현대위아/경신/LS오tomotive/유라코퍼레이션/광진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그 외에 포스코(철강), 삼성엔지니어링(EPC), 삼성SDS(IT), CJ로지스틱스/현대글로벌비즈(물류) 등도 진출해 있다.

멕시코 진출 주요 한국기업



자료: KOTR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폭스콘의 인도 SMT 라인 수주,
향후 폭스콘 멕시코 및 북미 투자에
추가 수주 기대**

세계 최대 EMS(전자제조서비스)기업이자 애플의 최대 위탁생산업체인 폭스콘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서버용 GB200 칩 제조를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 건설을 멕시코에 추진 중이다. 특히 공장 투자지역이 동사가 진출해 있는 멕시코 2대 도시인 과달라하라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공장 규모는 길이만 450M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로 미국과 서방의 對중국 반도체 제재에 대응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동사는 지난 6월 대만 폭스콘과 167만 달러(23억 원) 규모의 PCB 이송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였다.

폭스콘과의 계약은 폭스콘의 인도공장 이전에 동사가 참여한다는데 의미가 크다. 폭스콘은 對중국 무역제재에 대응하고자 중국에서 인도로 생산거점을 분산하고 있다. 동사는 폭스콘에 PCB 이송장비 납품 이후에도 3년 Warranty에 따라 유지보수 및 부품공급 매출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폭스콘은 제조공장을 인도로 이전하면서 애플의 아이폰 PCB 모듈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동사의 고정밀 PCB 이송 솔루션을 채택한 것으로, 30여개의 SMT 공정 장비 및 검사장비를 연결하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수율과 공정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동사는 이번 폭스콘 인도 프로젝트 수주로 향후 다른 지역의 증설프로젝트에도 추가 공급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폭스콘은 미국 휴스턴에도 메가팩토리를 건설하기 위해 4.5억 달러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인도공장에 이어 폭스콘의 미국 공장에서도 신규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폭스콘과의 계약은 동사의 SMT 스마트 물류솔루션이 글로벌 최대 EMS 기업에도 채택되었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폭스콘이 중국 위주 생산에서 인도, 북미로 분산 이전하며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동사의 수혜를 기대해볼만 하다. 현재 멕시코 및 북미지역에는 동사와 같이 SMT Full Line 솔루션을 공급가능한 기업이 소수인만큼 멕시코는 현재 동사에게는 블루오션이나 다름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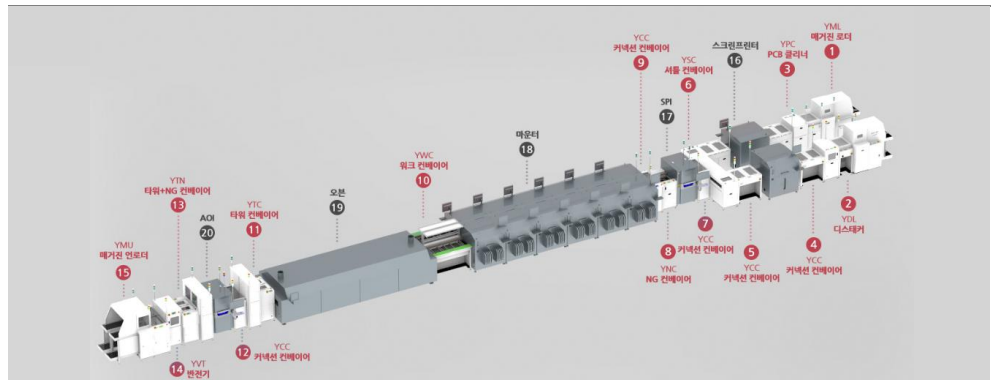
**동사는 2024년 테슬라의 SMT
Line 20대 장비 중 75%인
15대를 공급하며 AVL 등록,
향후 멕시코 및 북미지역 전장부분
수주 확대 예상**

멕시코는 글로벌 주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생산거점으로 자동차 생산 부문 세계 7위, 자동차부품 생산 부문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이며, 생산된 차량의 80%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된다.

주요 자동차 기업으로는 GM, Nissan, Ford, Stellantis, VW, Toyota, 기아, Mazda 등 다수의 업체들이 생산공장을 가동 중이며, Ford, GM, 스텔란티스, JAC 등은 멕시코에서 전기차(EV) 모델을 생산 중이며, 테슬라도 누에보레온주에 기가팩토리(Giga Factory)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멕시코의 자동차산업은 미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USMCA의 무관세 혜택, 숙련된 저임금 노동력, 정부의 적극적 투자유치 정책 등으로 북미 전기차 시장의 핵심 생산거점으로 부상했다.

동사는 2024년 북미 최대 전기차기업인 테슬라에 SMT 장비를 공급하며 테슬라 AVL(Approval Vendor List)에 등록하였다. 전장부품 SMT Line의 20대의 장비 중 동사는 15대를 공급하여 전체 Full Line의 75%를 동사가 자체 개발한 장비로 공급하였다. 동사는 북미지역 최대 전기차업체이자 글로벌 EV 시장을 선도하는 테슬라에 SMT Line 납품 레퍼런스를 확보함으로써 테슬라에 공급되는 전 EMS업체에도 SMT Line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테슬라 SMT Line



자료: 와이제이링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빨간색으로 표기된 장비가 동사가 영위하는 제품군

반도체 패키징 시장 본격 진출로 수요업종 다변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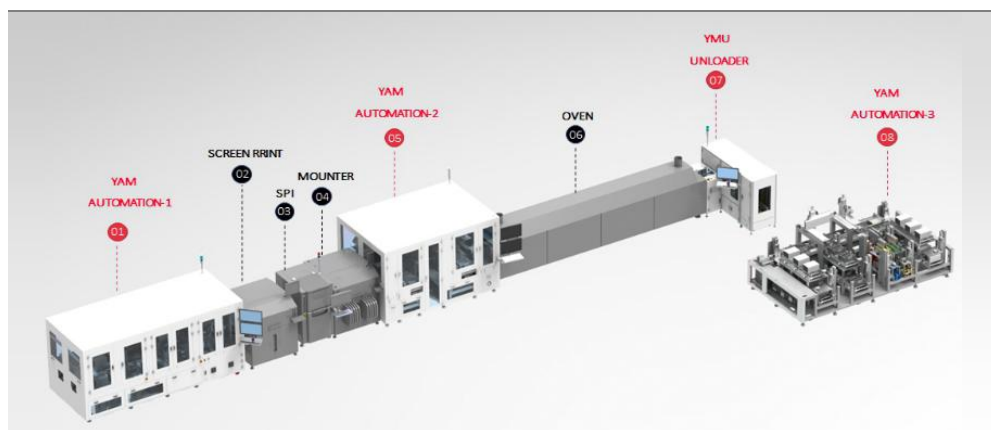
**2024년 글로벌 최대 반도체
패키징기업인 대만 ASE에 SMT
장비를 공급하며 반도체 패키징
시장으로도 사업영역 확대**

동사는 기존 가전 및 자동차 위주의 수요처에서 최근에는 반도체 패키징 공정으로도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수요처를 다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동사가 SMT Line 장비를 공급한 고객사 레퍼런스를 보면 테슬라, SpaceX, Apple, SolarEdge, Harman, CISCO,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SIEMENS, GE 등 글로벌 첨단 기업과 FOXCONN, JABIL, Continental, DENSO, Flex, Panasonic, Bosch, Hitachi 등 다수의 글로벌 EMS(전자제품 위탁생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는 대만의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1위업체인 ASE와도 반도체 패키징 SMT 라인의 Automation, Unloader 장비 등 주요 장비를 수주하며 반도체 패키징 부문으로도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동사가 ASE에 납품하는 장비는 반도체 보드를 적재 및 배출하는 보트 로더(Boat Loader)와 보트 언로더(Boat Unloader), 보드의 이송, 보관, 마킹, 검수 등 다양한 공정이 혼합된 Automation 장비 등으로 ASE 반도체 패키징 라인의 7대 장비 중 동사가 4대의 장비를 공급하여 57%를 차지하였다.

동사의 반도체 장비용 Boat Loader 및 Unloader는 반도체 공정에서 Lead Frame, BGA 보드, Boat 등을 자동으로 공급하고 적재하는 장비로 제품의 굽힘 및 걸림 방지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보트를 적재하는 수량 및 적재방법 관리, 각 부위별 컨베이어 자동 폭조절, Magazine 리프트 관리, 에러 발생 시 위치 표시, 조치방법 안내 및 로그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ASE社 반도체 패키징 공정장비



자료: 와이제이링크 반기보고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빨간색으로 표기된 장비가 동사가 영위하는 제품군



실적 추이 및 전망

2025년 상반기 실적 분석

2024년말 고객사 투자 지연에 따른 수주잔고 감소 영향으로 2025년 상반기 실적 부진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은 179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7%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33억 원으로 적자로 전환되었다. 동사의 수주 이후 매출 반영까지 리드타임은 약 3개월 소요되는데 지난 해 4분기말 수주잔고가 이전 분기 평균 수주잔고(150억 원 내외) 대비 93억 원, 2025년 1분기말 99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올해 상반기 매출 부진으로 이어졌다. 동사의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하기 위한 월간 매출액 규모는 약 40억 원으로 분기 매출액이 120억 원을 상회해야 영업이익 흑자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는 이를 미달하였다. 2025년 상반기 별도 매출액 기준 본사(대구) 생산비중은 30.2%, 베트남 법인 생산비중은 69.8%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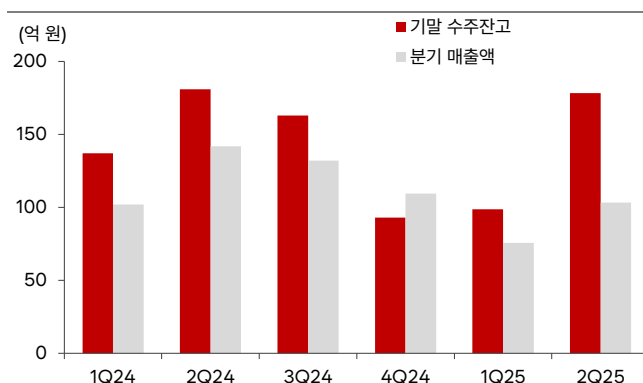
분기별 매출액을 보면 2025년 1분기 76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8% 감소하며 영업이익은 -13억 원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분기 매출액은 103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3% 감소하였으나, 전분기대비로는 35.5%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 6월 동사가 애플의 아이폰 EMS업체인 폭스콘(FOXCONN)으로부터 약 167만 달러(23억 원)에 수주한 인도공장내 PCB 이송 솔루션이 2분기 매출에 반영되며 외형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거래 상계 전 베트남 법인의 상반기 매출액은 96억 원으로 전년도(187억 원)대비 48.9% 감소하며 연결 매출액 감소를 야기하였다.

지역별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을 보면 국내 16억 원(YoY -21.4%), 미국 37억 원(YoY -32.1%), 멕시코 37억 원(YoY +25.1%), 유럽 29억 원(YoY -60.7%), 아시아 60억 원(YoY -3.7%)을 기록하며 멕시코를 제외하면 유럽, 미국, 국내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출액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상반기말 동사의 수주잔고는 178억 원으로 2024년 2분기 이후 최근 4개분기 최대치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3분기 매출액에 대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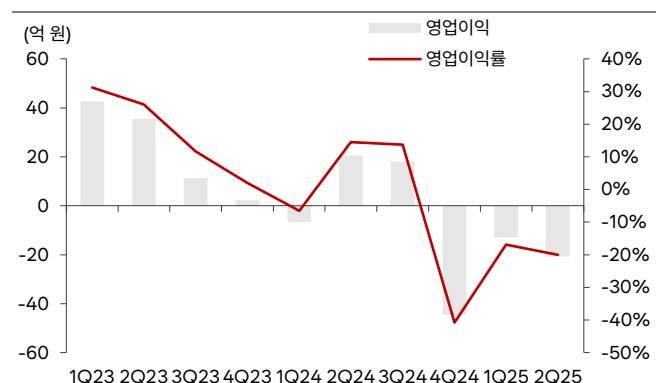
동사는 지난 6월 현대기아차의 1차 협력사인 K사와 약 26억 원 규모의 전장용 SMT Full Line 1기를 수주하는데 성공하며 수주액을 늘렸다. 동사는 2025년 7월말까지 대구광역시에 전공정·후공정 포함 SMT Full Line 1기를 구축할 예정이며, 본 계약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K사는 동사의 SMT 풀라인을 기반으로 자체 PCB 생산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고객사가 단순 장비 구매가 아닌 생산체제 전환이라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동사의 기술력이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K사는 2027년까지 멕시코 현지법인에 동일한 SMT Full Line 설비를 도입할 예정인 만큼 풀라인 공급은 단일 공급계약을 넘어 고객사와 중장기 글로벌 사업 확장 파트너로 동반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시그널이다.

수주잔고 및 매출액 추이



자료: 와이제이링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분기별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와이제이링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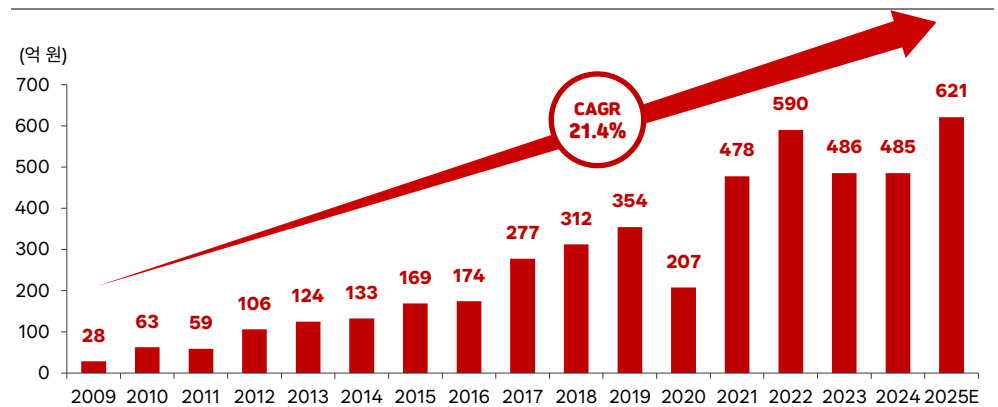
2025년 연간 실적 전망

**2025년 매출액은 621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 경신 전망,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흑자전환하나,
상반기 적자로 2022~2023년
수준에는 미달**

2025년 연간 실적은 상저하고 흐름으로 전망된다. 상반기말 수주잔고가 178억 원으로 증가하여 3분기 매출액은 182억 원으로 증가하며 영업이익이 흑자로 턴어라운드할 전망이다. 4분기 매출액은 연중 최대치인 260억 원으로 증가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특히 4분기부터는 지난 8월 15일 준공한 멕시코공장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공장은 월간 300대의 SMT 장비 생산 CAPA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풀가동시 연간 매출액이 300~400억 원대에 달하는 규모이다. 분기별 매출액 규모가 영업이익 기준 추정 BEP인 120억 원대를 상회하면서 3분기부터 영업이익은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며, 분기별 영업이익은 3분기 35억 원(OPM 19.2%), 4분기 61억 원(OPM 23.5%)을 달성하여 하반기 평균 영업이익률이 20%대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연간 매출액은 621억 원으로 전년대비 27.9% 증가해 최근 2년여 정체국면에서 탈피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영업이익은 63억 원(OPM 10.1%)으로 전년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할 전망이다. 연간 매출액 규모는 역대 최대치로 증가할 전망이다. 상반기 영업적자 영향으로 연간 영업이익 규모는 2022~2023년 규모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2009-2025 매출액 추이 및 전망: 2009년 설립 이후 16개년간 연평균 20%대 고성장세 지속



자료: 와이제이링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전망

(단위: 억 원)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590	486	485	621
제품(SMT)	554	461	465	599
상품/기타	36	24	20	22
내수 매출액	39	56	64	65
수출 매출액	551	429	421	556
내수 매출비중	7%	12%	13%	10%
수출 매출비중	93%	88%	87%	90%
영업이익	154	92	-13	63
영업이익률	26.0	18.9	-2.6	10.1
순이익	131	71	4	35
매출증가율	N/A	-17.8	-0.0	27.9
영업이익증가율	N/A	-40.4	적전	흑전
순이익증가율	N/A	-47.6	-95.1	623.7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PBR 1.3배로 코스닥평균 대비
저평가, 설립이후 16년간 매출액
CAGR 21.4%의 고성장세 지속,
2025년 8월 멕시코 공장 가동 및
SMT Full Line 판로 확장 기대로
주가는 리레이팅 기대**

현주가는 2025년 추정BPS대비 PBR 1.3배로 코스닥평균(2.7배)대비 절반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동사는 수출비중이 90%에 육박하는 글로벌 SMT 공정 장비 부문에서 Full Line 구축이 가능한 SMT Platform 선두업체로서 국내 유일 업체이며, 해외시장에서는 비상장사인 독일 ASYS, 싱가포르 Nutek 2개사 외에는 경쟁사가 없다.

SMT 공정장비는 Full Line을 구성하는데 약 15~30개의 장비가 필요한데 동사는 PCB 이송장비를 주력으로 PCB 추적장비, SMT 후공정장비, Smart Factory Solution 등을 포함하여 풀라인의 약 70%를 자체 개발한 장비로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이다. 동사가 자체 생산하지 않는 나머지 5개 장비(Screen Printer, SPI, Chip Mounter, Reflow Oven, AOI)는 국내외 업체(Panasonic, Fuji, ASM, Heller, 고영, PARM 등)로부터 유통하여 Full Line으로 공급한다.

국내 시장에서 사업영역이 겹치는 비교할 만한 상장업체가 없지만, 상장 당시 투자설명서를 참고하면 사업 및 사업 유사성을 고려하여 Peer업체로 고영, 로체시스템즈, 네오셈, 제너셈 등 4개사를 선정하였다. 이들 4개사 외에 펌트론도 SMT, 반도체, 2차전지 시장 머신비전 검사업체로서 비교대상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25년 상반기말 자본총계 기준 이들 업체의 PBR을 비교해 보면 펌트론은 PBR 11.4배로 가장 높고, SPI 및 AOI 부문 글로벌 1위업체인 고영은 PBR 3.2배, 반도체 검사장비업체인 네오셈은 PBR 3.1배 등으로 동사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며, 로체시스템즈(PBR 1.4배)와 제너셈(PBR 1.3배)은 동사와 유사한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고영의 경우에는 동사가 직접 생산하지 않는 SPI(Solder Paste Inspection) 및 AOI(Automated Optical Inspection) 등 SMT 검사장비를 동사에 유통하는 파트너업체로서 사업적으로 연관성이 가장 높은 업체이다.

동사는 2024년 10월 상장 당일 공모가액(12,000원)의 2배인 24,000원까지 상승하며 시가총액이 3,400억 원대를 상회했으나, 이후 2024년 4분기부터 이어진 수주잔고 감소 및 영업적자 전환 등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 주가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2009년 설립이후 동사의 매출액은 2009년 28억 원에서 2022년 563억 원까지 13년간 연평균 25.9% CAGR로 고성장세를 구가했으나, 2023~2024년 2년간 매출 정체기를 경험하였다. 하지만 동사의 외형 성장세는 올해를 기점으로 향후 수년간 지속되어 2~3년내 연매출 1,000억 원대에 달해 동사의 과거 고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동사의 고성장세를 견인할 모멘텀으로는 베트남 공장에 이어 두번째 해외공장인 멕시코 공장이 지난 8월 15일 신규로 가동했다는 점이다. 멕시코의 미국의 니어쇼어링 최적의 입지로 글로벌 자동차, 전자업체 및 EMS 기업들이 대거 진출한 지역으로 USMCA에 따라 미국과 관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지리적 이점이 있으며, 현지에는 동사와 같이 SMT Full Line을 공급할 수 있는 경쟁사도 없다. 멕시코에 이어 2027년에는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 생산법인 가동에 이어 2028년 이후에는 유럽시장까지 진출할 경우 동사는 대륙별 글로벌 생산거점에 진출하여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1위업체인 ASE로부터 반도체 패키징 공정 SMT 라인을 수주하면서 반도체 후공정으로도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동사는 주요 고객사로 테슬라, Space X, SolarEdge, FOXCONN, ASE까지 글로벌 각 부문 선두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현대차 1차 협력사로부터 첫 SMT Full Line을 공급하면서 글로벌 SMT Platform 선두업체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향후 밸류에이션이 확장될 여지가 크다. 수익성 면에서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매출액 증가로 영업이익률이 20%대를 재차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Peer Valuation

(단위: 억 원, %, 배)

		와이제이링크	고영	로체시스템즈	네오셈	제너셈	팜트론
시가총액		10,127	1,823	3,514	622	2,316	2,316
자산총계	2022	733	3,917	1,338	1,308	792	728
	2023	733	3,672	1,368	1,064	778	747
	2024	1,157	3,779	1,575	1,419	864	717
	2025E	1,213	4,360	N/A	N/A	N/A	N/A
자본총계(지배)	2022	261	3,052	1,045	623	402	261
	2023	413	3,053	1,116	868	426	324
	2024	782	3,232	1,223	1,159	500	280
	2025E	816	3,224	N/A	N/A	N/A	N/A
매출액	2022	590	2,754	1,446	747	596	612
	2023	486	2,256	1,053	1,009	565	737
	2024	485	2,025	1,601	1,052	687	570
	2025E	621	2,254	N/A	N/A	707	707
영업이익	2022	154	443	264	84	85	64
	2023	92	204	119	81	36	81
	2024	-13	33	198	165	65	-36
	2025E	63	165	N/A	N/A	35	35
영업이익률	2022	26.1	16.1	18.3	11.2	14.3	10.4
	2023	18.9	9.0	11.3	8.0	6.3	10.9
	2024	-2.6	1.6	12.4	15.7	9.5	-6.4
	2025E	10.1	7.3	N/A	N/A	5.0	5.0
당기순이익(지배)	2022	131	393	203	100	122	53
	2023	71	219	89	83	37	71
	2024	4	210	121	192	61	-19
	2025E	35	164	N/A	N/A	N/A	N/A
PER	2022	0.0	22.3	6.0	12.9	3.7	10.2
	2023	0.0	51.8	10.8	37.9	31.9	26.8
	2024	368.2	26.5	22.3	19.9	9.8	-58.4
	2025E	30.8	61.8	N/A	N/A	N/A	N/A
PBR	2022	0.0	2.8	1.1	2.0	1.1	2.3
	2023	0.0	3.6	0.8	3.7	2.8	5.9
	2024	2.2	1.7	2.2	3.2	1.2	3.9
	2025E	1.3	3.0	N/A	N/A	N/A	N/A
ROE(지배)	2022	50.3	13.4	21.5	17.7	36.1	28.0
	2023	21.1	7.2	8.2	11.1	9.0	24.3
	2024	0.7	6.7	10.4	19.0	13.1	-6.3
	2025E	4.3	5.1	N/A	N/A	N/A	N/A
현금배당수익률	2022	N/A	1.1	0.6	1.0	1.5	0.0
	2023	N/A	0.9	0.8	0.4	0.0	0.0
	2024	0.0	1.7	0.3	0.7	1.1	0.0
	2025E	0.0	1.0	N/A	N/A	N/A	N/A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Peer 실적 추정치는 Fnguided 컨센서스 기준, 8월 26일 기준

리스크 요인
1 장비산업의 높은 실적 변동성 리스크

**장비업체 실적은 고객사의 투자 및
설비교체에 따른 수주 변동성에 노출**

동사와 같은 장비업체는 주요 고객사의 투자계획 또는 설비증설 계획에 따라 영업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이다. 주요 고객사인 EMS 및 자동차 전장부품업체의 신규 증설 또는 기존 공장의 설비 교체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이는 수주 잔고 변동으로 이어져 매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2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

**멕시코공장 8월 가동,
투자에 따른 고정비 부담으로
사업 초기 수익성에 부담을 줄
가능성 존재,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도 주목**

동사는 지난 8월 15일 멕시코공장을 준공하여 본격 가동에 돌입하였다. 멕시코 신공장 투자에 따른 추가 고용 및 감가상각 등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향후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신규 매출액이 계획대로 창출되지 않을 시에는 고정비 및 연구개발비용 부담으로 수익성에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 미국의 관세 압박은 미국과 USMCA로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멕시코 진출기업에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멕시코는 자동차부품을 포함하여 대미 수출품 중 85% 이상이 USMCA에서 요구하는 북미 원산지 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트럼프 2기정부는 비관세장벽을 폐지하고 30% 관세를 위협하면서 멕시코와 25% 관세를 90일간 연장에 합의한 상태이다. 90일 이후 무역협정 체결까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N/A	590	486	485	621
증가율(%)	N/A	N/A	-17.8	-0.0	27.9
매출원가	N/A	327	270	325	330
매출원가율(%)	N/A	55.4	55.6	67.0	53.1
매출총이익	N/A	263	215	161	291
매출이익률(%)	N/A	44.6	44.3	33.1	46.8
판매관리비	N/A	109	123	173	228
판매비율(%)	N/A	18.5	25.3	35.7	36.7
EBITDA	N/A	171	111	12	124
EBITDA 이익률(%)	N/A	28.9	22.9	2.5	20.0
증가율(%)	N/A	N/A	-34.8	-89.2	935.1
영업이익	N/A	154	92	-13	63
영업이익률(%)	N/A	26.0	18.9	-2.6	10.1
증가율(%)	N/A	N/A	-40.4	적전	흑전
영업외손익	N/A	-1	-10	9	-22
금융수익	N/A	54	27	41	7
금융비용	N/A	56	42	32	29
기타영업외손익	N/A	1	4	0	0
총속/관계기업관련손익	N/A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N/A	153	82	-3	41
증가율(%)	N/A	N/A	-46.5	적전	흑전
법인세비용	N/A	22	11	-7	6
계속사업이익	N/A	131	71	4	35
중단사업이익	N/A	0	0	0	0
당기순이익	N/A	131	71	4	35
당기순이익률(%)	N/A	22.3	14.5	0.8	5.6
증가율(%)	N/A	N/A	-46.3	-94.4	775.3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N/A	131	71	4	35

현금흐름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N/A	142	85	-10	29
당기순이익	N/A	131	71	4	35
유형자산 상각비	N/A	16	19	24	60
무형자산 상각비	N/A	1	1	1	1
외환손익	N/A	20	4	9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N/A	-37	2	-26	-68
기타	N/A	11	-12	-22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N/A	-34	-83	-168	-199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N/A	0	0	0	-3
유형자산의 감소	N/A	1	6	1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N/A	-33	-80	-171	-196
기타	N/A	-2	-9	2	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N/A	-7	-51	412	0
차입금의 증가(감소)	N/A	3	-105	59	0
사채의증가(감소)	N/A	-1	-2	0	0
자본의 증가	N/A	0	45	356	0
배당금	N/A	0	-6	0	0
기타	N/A	-9	17	-3	0
기타현금흐름	N/A	-6	-1	4	-5
현금의증가(감소)	N/A	95	-50	238	-175
기초현금	N/A	15	111	61	299
기말현금	N/A	111	61	299	124

재무상태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유동자산	N/A	417	350	610	528
현금성자산	N/A	111	61	299	124
단기투자자산	N/A	3	6	0	1
매출채권	N/A	201	161	173	225
재고자산	N/A	84	98	92	129
기타유동자산	N/A	18	25	45	50
비유동자산	N/A	315	383	548	685
유형자산	N/A	265	330	483	619
무형자산	N/A	10	11	13	12
투자자산	N/A	8	9	10	12
기타비유동자산	N/A	32	33	42	42
자산총계	N/A	733	733	1,157	1,213
유동부채	N/A	312	179	192	212
단기차입금	N/A	142	51	66	66
매입채무	N/A	49	26	20	25
기타유동부채	N/A	121	102	106	121
비유동부채	N/A	160	141	183	184
사채	N/A	0	0	0	0
장기차입금	N/A	157	128	167	167
기타비유동부채	N/A	3	13	16	17
부채총계	N/A	471	320	375	396
자배주주지분	N/A	261	413	782	816
자본금	N/A	6	7	72	72
자본잉여금	N/A	0	86	376	376
자본조정 등	N/A	-0	-0	1	1
기타포괄이익누계액	N/A	0	0	9	9
이익잉여금	N/A	256	320	324	359
자본총계	N/A	261	413	782	816

주요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F
P/E(배)	N/A	0.0	0.0	368.2	30.8
P/B(배)	N/A	0.0	0.0	2.2	1.3
P/S(배)	N/A	0.0	0.0	3.0	1.7
EV/EBITDA(배)	N/A	1.4	1.6	146.3	10.0
배당수익률(%)	N/A	N/A	N/A	0.0	0.0
EPS(원)	N/A	1,303	683	34	243
BPS(원)	N/A	2,594	3,722	5,497	5,740
SPS(원)	N/A	5,856	4,703	4,128	4,365
DPS(원)	0	59	0	0	0
수익성(%)					
ROE	N/A	50.3	20.9	0.7	4.3
ROA	N/A	17.9	9.6	0.4	2.9
ROIC	N/A	N/A	16.0	1.1	6.3
안정성(%)					
유동비율	N/A	133.9	195.4	317.0	248.7
부채비율	N/A	180.3	77.6	48.0	48.6
순차입금비율	N/A	91.6	42.1	0.1	21.5
이자보상배율	N/A	9.2	5.4	-0.9	4.5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N/A	0.8	0.7	0.5	0.5
매출채권회전율	N/A	2.9	2.7	2.9	3.1
재고자산회전율	N/A	7.0	5.3	5.1	5.6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와이제이링크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5.08.28	와이제이링크-Global No.1 SMT Platform Leader로 부상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